

◇폐동맥밴딩 상태의 소아에 있어서 2차 완전교정술의 성적

천종록, 전상훈, 장봉현, 이종태, 김규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폐동맥밴딩술[pulmonary artery banding]은 큰 심실중격결손이나 복잡 심기형을 갖은 어린 영아에서 과도한 폐혈류 때문에 난치성 심부전이 초래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고식적 수술법이지만 폐동맥밴딩에 따른 합병증과 2차 수술시의 이병률과 사망률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전에 폐동맥밴딩술을 받았던 소아들에 있어서 2차 완전교정술의 성적을 조사하였다.

방법 : 이전에 폐동맥밴딩술을 받았던 환아들중 1988년 5월부터 1997년 6월까지 9년 1개월동안에 개심술에 의한 2차 완전교정술을 받았던 29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술전의 임상적 소견과 아울러 술전후에 실시한 심초음파검사, 심도자검사 및 심혈관조영술 등의 성적을 분석하였고, 수술소견, 수술성적 및 술후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술방법, 술후 조기 및 만기 합병증, 수술사망률, 술후 추적관찰 소견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 27례는 폐동맥밴딩술후에 심부전 증상이 호전되었었고, 2례는 그렇지 못하여 조기에 2차 수술을 시행해야 하였다. 폐동맥밴딩술후 2차 완전교정술 시행까지의 기간은 평균 15.5 ± 8.7 개월이었다. 진단명은 양대혈관우심실기사가 2례, 심실중격결손이 주병변이었던 경우가 27례였었다. 수술방법은 양대혈관우심실기사군에서는 심실내 턴넬교정법 1례 및 수정 Glenn수술 1례가 시행되었고, 심실중격결손군에서는 심실중격결손의 첩포봉합 27례, 누두부근육절제술 4례 및 폐동맥판막절제술 1례가 시행되었다. 주폐동맥협착의 교정방법으로는 주폐동맥패취성형술 18례, 폐동맥밴드의 단순제거 10례 및 주폐동맥의 결찰 1례가 있었다. 전체 환자에서 병원사망률이 17.2%였고, 만기사망 1례가 있었다.

결론 : 폐동맥밴딩술후 2차 완전교정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술후 이병률과 수술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고, 술후 경과에 있어서는 주폐동맥협착의 재발이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2차 완전교정술시에 폐동맥밴딩에 의한 주폐동맥협착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부분적으로 제거한 상태에서 폐동맥패취성형술을 추가하기 보다는 성형술은 시술하지 않더라도 폐동맥밴드를 완전제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저자: 김규태(경북대학교) 발표자: 천종록(경북대학교)